

중세 왕조모노가타리와 오토기조시의 영향관계에 관한 일고찰*

- 계모담을 중심으로 -

이 신 혜**

shinhyelee@naver.com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1) 남녀주인공의 재회 혹은 만남 |
| 2. 친딸의 성격적 변용 | 2) 남주인공의 신불기원 |
| 3. 장면과 표현의 유사성 | 4. 맺음말 |

Key word : 中世王朝物語(Medieval Dynasty Monogatari), お伽草子(Otogizoushi), 住吉物語(Sumiyoshi-Monogatari), 継子いじめ譚(Stepchild bullying Story), 秋月物語(Akitsuiki-Monogatari)

1. 머리말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귀족 모노가타리, 즉 “중세 왕조모노가타리(中世王朝物語)”¹⁾는 그 당시에는 200여개가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존하는 것은 28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²⁾ 이 작품군은 사랑, 비련, 출가둔세, 성애, 가계(家系),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685)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강사, 고전산문

1) 이하 반복되는 용어나 빈출하는 작품명은 한자로 표기함.

2) 이 작품군은 1988년~1989년에 市古貞次·三角洋一編『鎌倉時代物語集成 1-7』(笠間書院)에 34편이 번각되었고, 1995년부터 今井源衛·市古貞次를 중심으로 주석과 현대역이 갖춰진 『中世王朝物語全集』(笠間書院)가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더욱더 알려

계모담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스미요시 모노가타리(住吉物語)』, 『고와타노시구레(木幡の時雨)』, 『사요고로모(小夜衣)』, 『무구라(むぐら)』, 『시라쓰유(しら露)』, 『마쓰카게주나곤(松陰中納言)』 등 6개 작품³⁾은 계모담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일본의 계모담 모노가타리로는 중고시대의 『오치쿠보 모노가타리(落窪物語)』와 중세의 개작본 『住吉物語』가 대표적이며, 그 이후로는 오토기조시(お伽草子)의 『후세야노 모노가타리(ふせやの物語)』, 『비진쿠라베(美人くらべ)』 등 14개 작품⁴⁾이 그 맥을 잇고 있다. 14개의 계모담 오토기조시는 그 내용상 민간 설화, 혼지모노(本地物), 산실모노가타리(散逸物語)의 개작, 이물류(異類物), 그리고 『住吉物語』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住吉物語』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으로는 『ふせやの物語』, 『美人くらべ』, 『아키쓰키 모노가타리(秋月物語)』, 『이와야노소시(岩屋の草子)』 등 4개 작품을 들 수 있다. 『住吉物語』가 이 4개 작품의 구성, 등장인물, 표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시마즈 히사모토(島津久基)⁵⁾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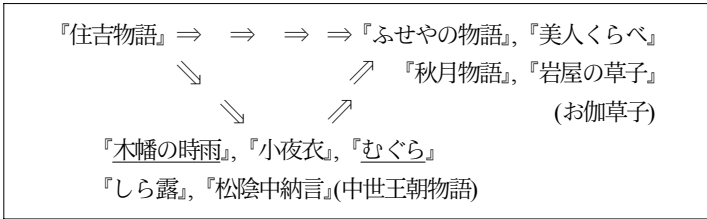
『住吉物語』가 4개의 계모담 오토기조시에 대해 강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본고에서는 『住吉物語』뿐만 아니라 다른 계모담 中世王朝物語도 계모담 오토기조시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中世王朝物語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활발해짐에 따라 헤이안 후기모노가타리와 오토기조시를 이어주고, 그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 中世王朝物語 작품군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자리매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게 되었다. 28개 작품을 23권으로 출간에 정이며 현재 14권이 출간되었다.

- 3)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져서 꾸준히 개작되면서 사랑을 받아온 『住吉物語』는 나머지 작품들에게 플롯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木幡の時雨』와 『小夜衣』는 플롯과 표현면에서 『住吉物語』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小木喬(1984) 『鎌倉時代物語の研究』 有精堂 p.256, 清水泰(1989) 『校註小夜衣』 有精堂 p.1)
- 4) 『ふせやの物語』, 『美人くらべ』, 『秋月物語』, 『岩屋の草子』, 『一本菊』, 『小落窪』, 『花世の姫』, 『鉢かづき』, 『うばかは』, 『中将姫本地』, 『朝顔の露の宮』, 『月日の御本地』, 『伊豆箱根の本地』, 『花みつ』
- 5) 島津久基(1928) 『ふせやの物語(考説)』 『近古小説新纂』 中興館 pp.416-444
松本隆信(1954) 『住吉物語以降—継子苟め譚の類型に関する一考察—』 『芸文研究』 3
내용과 전개에 대한 유사성 지적에 머물 뿐 구체적인 장면과 표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즉 다음 그림1에서 보듯이 계모담 오토기조시는 『住吉物語』와 이의 영향을 받은 다른 5개 中世王朝物語 양쪽으로부터 모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영향관계도



지금까지 대략적인 내용과 전개양상 등 큰 틀에서 『住吉物語』와 오토기조시의 영향관계가 지적되었는데, 좀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장면묘사와 표현을 통해 각 작품군 간의 영향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찰을 위한 작은 시도로서 본고에서는 주요인물(계모의 친딸)의 성격적 변용과 표현과 장면의 유사성(남녀 주인공의 재회 혹은 만남, 남주인공의 신불기원)이라는 점에서 中世王朝物語인 『木幡の時雨』와 『むぐら』의 중간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친딸의 성격적 변용

본장에서는 친딸의 성격이 『住吉物語』에서 『木幡の時雨』로 그리고 『秋月物語』로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로 마쓰모토 다카노부(松本隆信)는 “『住吉物語』의 친딸들은 지극히 소극적인 존재였지만, 『秋月物語』의 친딸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성격이 부여되었다⁶⁾”고 지적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장면과 본문을 제시하고 또 더 나아가 『木幡の時雨』를 중간 매개체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6) 松本隆信 前掲論文 p.22

우선 『住吉物語』에서 남주인공 쇼쇼(少将)는 사모하는 주인공 의붓딸(姫君)에게 구혼을 하지만 계모와 유모가 쇼쇼를 속여서 친딸(三の君)과 결혼시켜버린다. 쇼쇼는 속아서 결혼한 사실을 알아차린 후에 친딸에게 출가의 뜻을 비치며 냉담하게 대하지만, 친딸은 그런 사정을 모른 채 그저 남편에게 매달릴 뿐이었고, 사가노(嵯峨野) 들놀이에서도 친딸은 의붓딸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쇼쇼와 상관없이 친딸은 자매인 의붓딸과 사이가 좋은 편이라서 의붓딸 실종 후에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걱정하며, 의붓딸이 돌아온 후 어머니의 나쁜 행실이 드러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친딸은 이야기 전개상 꼭 필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주인공, 계모, 하녀 등의 등장인물에 비해 행동, 대사면에 있어 비교적 존재감이 없는 역할이다.

한편 中世王朝物語인 『木幡の時雨』에서도 남주인공 주나곤(中納言)은 둘째딸(中の君)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친어머니의 차별에 의해 셋째딸(三の君)⁷⁾과 결혼하게 된다. 후에 주나곤이 잘못 결혼한 사실을 알고 나서 거리감을 두자, 셋째딸도 남편이 원하는 사람인 자신이 아닌 언니임을 알게 된다. 둘째딸을 싫어하는 어머니는 셋째딸에게 “주나곤이 언니에 대해 묻더라도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셋째딸은 처음에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모르는 척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질투도 하고 원망도 해봤지만, 출산한 후에는 더 이상 남편의 마음을 자신에게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남편에게 언니를 찾으러가라고 권하게 된다. 어느 날 부부의 대화 도중, 셋째딸은 주나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셋째딸은 “당신이 저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척하고 언니대신에 부인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하는 마음이 드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7) 『木幡の時雨』는 계모학대담을 새로운 취향의 친딸학대담으로 변용한 작품이기 때문에 『住吉物語』의 친딸과 의붓딸은 『木幡の時雨』에서 각각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셋째딸과 어머니의 미움을 받는 둘째딸로 등장한다. 『木幡の時雨』는 『源氏物語』 『狭衣物語』 『住吉物語』로부터 장면과 표현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住吉物語』의 영향을 받은 계모담 부분에서는 플롯상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학대대상을 의붓딸에서 친딸로, 학대의 이유를 의붓딸에 대한 남편의 지나친 사랑에서 친딸의 유모가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으로 변용한 부분에서는 작가의 창의가 엿보인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머니께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때는 너무 어려서 부끄러운 마음에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이제는 언니를 찾으러 가세요. 저는 출가라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볼도수행을 할게요.” 라고 하자,

三の君、「いかにかくつれなくて見え奉ると、思ひ給ふらんも恥づかしう、いまなどならば、いかにとも聞こえさすべきを、幼かりしほどに恥づかしとのみ覚えて、ただまかせ聞こえしなり。いまは尋ねいで給へ。みづからは形をも変へて、心安く行ひ侍らん」との給へば、
(p.15)⁸⁾

즉 『住吉物語』에서는 그리 존재감이 없었던 친딸이 『木幡の時雨』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셋째딸로 그려지고 있으며, 남편과 언니의 재회를 바라는 쪽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셋째딸은 언니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즉 언니를 대신해서 황자를 속이고 언니가 출산한 아기들을 데리고 중궁으로 입궐하여 자신이 천황비가 됨으로써 언니와 주나곤이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여타 계모담 中世王朝物語의 친딸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인물들인데 비해, 『木幡の時雨』의 셋째딸은 그와는 달리 그려지고 있다.

『木幡の時雨』는 『住吉物語』의 계모와 의붓딸의 관계를 친모와 미움 받는 친딸로 변용함으로써⁹⁾ 계모담 화형 내에서 새로운 소재를 추구하여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두 딸이 각각 쌍둥이를 출산하여 서로 바뀌어 기르는 등 새로운 취향에 대한 노력이 곳곳에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계모담 화형에 충실하면서도 외딴 곳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낸 남자와 이별하지만 결국에는 아가씨가 행복을 찾아가는 시노비네(しのびね)형 이야기가 잘 어우러진 흥미로운 작품이다.

한편, 오토기조시인 『秋月物語』에는 아주 적극적인 친딸 아이시노키미(愛子の君)가 등장한다. 이 작품도 『住吉物語』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앞서 나온 모노가타리와 마찬가지로 남주인공 주조(中将)는 계모와 유모에게 속아서 친딸과 결혼하지만, 그 후에 속아서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다. 한편 남편이

8) 大槻修他(1997) 『木幡の時雨・風につれなき』 中世王朝物語全集6 笠間書院

9) 작가는 둘째딸의 유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질투심에 사로잡혀 둘째딸은 꼴도 보기 싫어서 미워한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설정을 마련해놓았으나 계모 학대담 변용에 대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사모하는 여인이 자신이 아니라 의붓딸인 아이코노키미(愛敬の君)임을 알게 된 후에 친딸은 두 사람이 맺어지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서 의붓딸에게 주조의 마음을 전해주고, 편지도 갖다 주는 등 적극적이다.

다음은 자신의 남편의 진심을 알고 나서 언니에게 남편의 마음을 전해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아이시는 마음속이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부끄러워져서 하는 말이 “왜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마음 속 깊이 숨기고 계셨어요? 너무하시군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신의 마음을 언니에게 전해드릴게요.”라고 하며.

愛子の御心のうち、やるかたなく、はつかしくおほして、のたまひけるは、なとや、さほと、の事、いま、て御心ふかく、つゝみ給ひける、うらめしさよ、かなふへき事は、しらねとも、申つたへ候はんと、ありければ (pp.142-143)¹⁰⁾

그 말에 주조는 매우 기뻐한다. 하지만 아이시가 언니를 찾아가서 주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언니는 묵묵부답이라서 이번에는 주조에게 와카를 써달라고 한다.

아이시노키미가 주조에게 말하기를 “언니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일은 천명이 끝어야 움직이는 돌을 움직이는 일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와카를 써주세요.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말해볼게요.”라고 하시자.

愛子の君、中將に申けるは、此君を申うかめん事は、千ひきの石は、なをかるし、さりながらふみあそはし候へ、又、申みんと、の給へば、 (pp.143-144)

반응이 없는 언니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서 설득을 한 끝에, 아이시는 언니의 화답가를 받기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주조를 언니 방으로 데리고 가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기도 한다.

아이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쓰키미로 오셔서 주조에게 말씀하시기를, “언니의 마음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오늘밤이 좋은 기회니까 만나게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자

10) 横山重・松本隆信(1973) 『秋月物語』、『室町時代物語大成 第1』角川書店

あひし、よきひとと、おほしめして、月見へおほしまして、二位の君に、の給ふやう、姫君の御心に、まかせては、かなふまし、こよひ、よきひまなれば、ちかつけまいらせはやと、おもふなりとの給へは、 (p.150)

주조는 친딸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의붓딸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 후에 아이시는 어머니가 무사를 시켜 언니를 죽이려고 했던 나쁜 행실을 알게 되자 한탄하며 집을 나가버리는 등 올곧고 정의감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秋月物語』는 『ふせやの物語』, 『美人くらべ』, 『岩屋の草子』와 더불어 『住吉物語』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는 작품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중간에 과도기적 역할의 계모담 中世王朝物語인 『木幡の時雨』가 존재함으로써, 『秋月物語』의 친딸은, 『住吉物語』의 친딸뿐만 아니라 『木幡の時雨』의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셋째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공인 의붓딸의 존재를 부각시킬 뿐 존재감이 희미한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住吉物語』의 친딸이, 『木幡の時雨』에서는 남편에게 언니를 찾으러가라고 권하는 셋째딸로, 다시 『秋月物語』에서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친딸의 모습으로 더욱 발전해 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¹¹⁾.

3. 장면과 표현의 유사성

1) 남녀주인공의 재회 혹은 만남

『木幡の時雨』와 오토기조시인 『岩屋の草子』에서 남녀주인공의 재회 혹은

11) 1900년대 초에 채집된 계모담 옛날 이야기(昔話)에서도 자매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친딸은 계모와 함께 의붓자식을 학대하는 『糠福米福』계통의 무성격에다가 단순히 의붓자식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에서 발전하여, 마음씨가 좋고 항상 배다른 언니 편을 들어서 계모의 학대로부터 지켜주는 『お銀子銀』계통이 되며, 이렇게 되면 동정자(同情者)로서 하나의 성격이 부여된다고 보고 있다.(松本隆信 前掲論文 p.21) 즉 『住吉物語』→『木幡の時雨』→『秋月物語』의 순으로 친딸 역할자가 의붓딸 역할자를 동정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남 장면의 상황설정과 표현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부분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木幡の時雨』에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주인공이 어머니의 방해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쓰노쿠니(津の国, 撰津)에서 우연히 재회하는 장면이다.

주나곤은 사가노의 천황 사냥터에서 **A**말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B**말에서 떨어져서 **C**팔을 부딪쳐서 다쳤다. …(중략)… 어떤 사람이 “쓰노쿠니 온천에 들어가서 고쳐보세요”라고 해서,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D**온천에 7일정도 들어가니 치유 되었기에 더없이 기뻐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온 김에 **E**나니와 근처를 구경하세요.”라고 해서, …(중략)…

오늘은 특별히 7월7일이기에 오작교 위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날의 인연이 한편으로 부러워서

F칠석날의 만남과는 상관없이 끝내 바다 밑으로 빠져죽는 내 인생이 슬프구나.

라고 생각하며 달이 기울 때까지 아가씨는 울고 계신데, 그곳에 고기잡이배가 올라왔다. …(중략)… 주나곤이 심심풀이로 고기잡이를 시켜서 구경하셨던 것인지 햇불이 상당히 눈부시다. 주나곤은 **G**아가씨가 숨어있는 바위 위에 내리셔서 “아, 피곤하군.”하며 주변을 돌아보시다가 이쪽 바위틈에 이상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가우똥거리며 보시면서 “여기에 이상한 것이 있는 모양이다. 그 햇불을 이쪽으로 다오.”하시는 그 목소리에 ‘달빛조차 부끄러운데다가 **H**햇불로 비춰지다니…’ 하고 아가씨는 부끄러워서,

嵯峨野の禁野の方に、**A**駒競べして遊び給ふとて、**B**馬より落ち給ひて、**C**御腕をつきて損じぬ。…(中略)…ある人、「津の国の湯に入らせ給ひて試みさせ給へ」とあれば、さらばとて親しき人々具せ聞こえて、**D**御湯に七日ばかり入り給ひて、よくおはしませばよろこび給ふこと限りなし。「さらば、このついでに**E**難波わたり見給へかし」とて、…(中略)…

今宵はことに七月七日なれば、七夕の契りもかつはうらやましくて、

F七夕の逢ふ瀬はよそになし果てて底の藻屑となるぞかなしき

と思ひ續けて、月の傾くまで泣きおはするに、ここに船にて漁する人なん舟さしのぼる。…(中略)…中納言のつれづれの紛らはしに、漁させて見給ふなるべし、いとまばゆし。この**G**おはする岩の上に降り給ひて、あな苦しとて、うち見まはし給へば、この岩のはざまにあやしきことかなと思ひて、うち傾きて見給ひ

つつ、「ここにあやしきことこそあんなれ、その松明」との給ふ御声に、月の影さへ恥づかしきに、H松明にて見捜されんこと、とつつましなければ、 (pp.52-55)

『木幡の時雨』에서 사가노(嵯峨野)에서 말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낙마하여 팔을 다친 주나곤이 쓰노쿠니 온천에 요양하러 가서 7일정도 지나 치유되자, “멀리 나온 김에 나니와(難波) 근처라도 구경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근을 구경하기로 한다. 때마침 7월 7일 칠석날 달 밝은 밤에 나니와 근처에서 뱃놀이 중이던 주나곤은 효에노스케(兵衛の佐)의 구혼을 피해 물에 빠져죽으려고 바닷가 바위 위에 나와 있는 여주인공인 둘째딸과 우연히 재회하게 된다.¹²⁾ 남녀가 만나는 칠석날과는 달리 바위 위에서 죽음을 결심하고서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노래를 읊고 있는 아가씨에게 불을 밝혀 그 모습을 확인함으로써 두 사람이 재회하게 되는 것이다. 알파벳과 밑줄로 표시한 부분이 이 장면의 중요 소재인데, 이와 똑같은 키워드가 『岩屋の草子』에도 등장한다.

주조는 시종과 사무라이를 데리고 가모 강가에 나와서 **a**말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주조는 **b**말에서 떨어져서 **c**원팔을 부딪쳐서 다쳤는데, 이요지방은 주조집안의 영지이기 때문에 요양을 위해 이요로 내려가셨다. **d8**, 9월에 요양하여 원래대로 나아가서 교토로 올라오신다. …(중략)…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강해져서 종잡을 수 없이 파도가 친다. 그래서 다섯 척의 배도 마구 흔들렸다. …(중략)… 그 섬사람이 말하기를 “여기는 아카시해변”이라고 한다. …(중략)… “**e**여기 서해도에 온 기념으로 같이 다니면서 놀아봅시다.”라고 하시며, …(중략)…이런 곳에 어부의 **h**바위동굴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여서…(중략)… **g**위쪽 바위동굴로 올라가서 살펴보니 다른 사람은 없었다. 단지 14, 5살쯤 되는 아가씨가 머리와 입술이 모두 아름답고 몸도 빛이 날 정도였다. **h**혼자서 해초로

12) 이 장면은 『住吉物語』에서 쇼쇼가 아가씨를 찾아 스미요시(住吉)까지 갔다가 재회한 후 귀경하기 전에 주위에서 『御ついでに難波あたりを御覽すべき』라고 해서 근처를 구경하는 장면 중, 이 대사만 『木幡の時雨』에서 비슷하게 쓰였을 뿐 내용 전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住吉物語』에 대해서는 본장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골절을 당하여 요양하러 갔다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소재는 무로마치(室町)시대의 『아마모노가타리(あま物語)』와 산실된 『아미카게주나곤(山陰中納言)』 설화에도 전한다.

불을 지피고 있었다. …(중략)…이 아가씨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시면서 이렇게 한 수 읊으셨다.

f생각이나 했을까 내가 어부가 되어 혼자서 해초로 불을 피우고 있을 줄이야 라고 노래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눈물 흘리며 고운 모습으로 계신다.

隨身・侍引具して賀茂の河原に立出て、**a**駒競べして遊ばせ給ひしに、中將殿 **b**馬より落ちて、**c**左の腕を突き損じ、伊予の国は殿下の分国なりければ、療治のために伊予へ下給ひぬ。**d**八月九月療治して、元のごとく直りて、都へ上り給ふ。…(中略)…

暮れゆくまゝに風激しく吹けば、しどろもどろに波ぞ立つ。されば五艘の船も乱れけり。…(中略)…その島の人申けるは、「これをば明石の浦」と申ければ、…(中略)…「…**e**これぞ西海道の思ひ出に、いざや、歩いて遊ばん」と仰せられて、…(中略)…かゝる処に、海士の**h**岩屋に火の有りて見えければ、…(中略)…**g**上の岩屋へ行って覗けば、人も無かりけり。十四五ばかりなる姫君の、髪の懸かり・口つき、いづくも愛敬がましき体の、輝やく程の気色なり。**h**荇藻をひとり明かさるゝ。…(中略)…此姫君は人の見るとは夢にも知り給はで、いと匂やかなる御声をさし上給ひて、かくぞ詠じ給ひけり。

f思ひきや身を海士人に成し果てて荇藻をひとり明かすべしとは

うち詠めて、らうたげなる声色、涙はらはらとうち流して、美しくおはする。

(pp.236-238)¹³⁾

『岩屋の草子』의 니이노 주조(二位の中將)는 중추절 15일 밤에 가모(賀茂) 강변에서 말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낙마하여 왼쪽 팔을 다쳐 요양을 위해 이요노쿠니(伊予国, 愛媛県)로 내려갔다. 회복되어 돌아오는 길에 일행을 태운 배가 하리마(播磨) 바닷가에서 폭풍우를 만나 섬에 표류하게 되는데, 마침 그곳 바위동굴(岩屋)에서 어부 부부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하고서 첫눈에 반해 아가씨를 교토로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게 된다.

여기서 A와 a는 말달리기 시합, B와 b는 낙마사고, C와 c는 팔 부상, D와 d는 요양 후에 치유됨, E와 e는 멀리까지 온 길에 근처 구경을 하자는 건의, F와 f는 여주인공의 신세 한탄 노래 한 수, G와 g는 바위 위에서의 만남, H와 h는 어두움을 밝히는 불빛을 통한 만남으로 각각 비슷한 설정을 통해 남녀주

13) 萩谷校注(1989) 『室町物語集・上』 新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인공의 만남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木幡の時雨』는 원래 알던 두 사람이 오랜 기다림 끝에 우연히 재회한 장면이고, 『岩屋の草子』는 남자가 여자를 발견하고 첫눈에 반하는 첫 만남을 그린 장면이라서 만나는 상황은 다르지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경위와 설정, 여주인공이 처한 상황 등의 구상과 표현이 공통된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岩屋の草子』가 『木幡の時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남주인공의 신불기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신불에게 기원하는 예는 모노가타리에서 빈출한다. 계모담 모노가타리에서 여주인공이 행방불명이 된 후 남주인공은 으레 처음에는 망연자실하고 식음을 전폐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두 영험이 있는 절에 참배하여 여주인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불에게 기원을 하게 된다.¹⁴⁾ 본절에서는 『住吉物語』의 신불기원 장면을 답습한 『むぐら』의 동(同)장면이 『ふせやの物語』, 『美人くらべ』, 『秋月物語』와 보다 더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住吉物語』의 쇼쇼의 하세(長谷)절 신불기원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①9월에 B하세절에 참배해서 7일간 틀어박혀서 기원했다. 7일째 밤 새벽에 조금 졸다가 C꿈에 고귀한 여성이 옆으로 얼굴을 돌리고 계셔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보니 아가씨였다. 가슴이 뛰어서 기쁨을 감출 수 없어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한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하자, (아가씨는)울면서 “이렇게까지 한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안됐군요.”라고 하면서 일어선다. 옷소매를 붙잡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자

14) 『大和物語』 168단 『苔の衣』에서 遍昭가 행방불명이 되자 그 아내가 長谷寺에 참배하여 “남편이 살아있으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죽었다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원하는데, 이 상황은 『住吉物語』이하 그 영향 하에 있는 작품 속에서 행방불명이 된 아가씨를 찾거나 신불에게 기원하는 남주인공의 모습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源氏物語』 玉鬘이야기에서 유모는 玉鬘를 데리고 규슈로 갔다가 호족의 구혼을 피해 무작정 상경한 후 玉鬘의 아버지를 찾자 長谷寺에 참배하러 갔다가 때마침 참배하러 온 右近을 만나 겐지의 후원을 받게 되는 등 長谷寺나 清水寺 등지에서 신불기원을 하여 영험을 얻은 사례는 많다. 또 겐지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住吉大明神에게 기원을 드렸더니 신들이 감응하여 폭풍우가 불고 대궐 침전에 벼락이 쳐서 화재가 발생한 예도 있다.

D바다 깊은 곳인 줄도 모르고 괴로워하며 지낸 곳을 스미요시라고 어부들은 말하더군요.

라고 말하면서 일어서 길래 대답을 하려는 차에 금세 **E**잠에서 깨어났다.

九月に**B**初瀬に参りて、一七日籠り念じ侍りけり。七日と言ふ夜、暁がたに少しまどろみ侍りしに、**C**御夢に、やんごとなき女房のうちそばみ給へるを、あなうつくしやと見れば、姫君なり。胸うち騒ぎ、うれしさ限りなくて、「さてもうづくにおはしますにか。かくいみじき目をば見せ給ふぞ。いかばかりか思ひ嘆くと知り給へる」と言へば、うち泣きて、「かくまでとは思はざりしを、いとあはれにぞ」と言ひて立ち給ふ。御袖を控へて、「おはし所知らせ給へ」とあれば、

Dわたつ海のそことも知らで侘びぬれば住吉とこそ海人は言ふなれ

と言ひて立つを、御返事せむ心地してEうち驚きけり。 (pp.106-107)¹⁵⁾

즉 하세절(B)에 참배한지 7일째 되는 날 꿈에(C) 아가씨가 나타나서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는 와키(D)를 불렀기에 잠에서 깬(E)는 것이다. 모노가타리에서 신불에게 기원을 하면 으레 꿈을 통해 영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본절에서는 그러한 소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면의 전개과정과 키워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어서 中世王朝物語인 『むぐら』의 남주인공의 신불기원 장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A털어내는 베개의 먼지를 추억으로 삼아 당신이 없는 침소에서 밤을 지새우누나. 라고 (다이쇼는) 한 수 읊고 …(중략)…B기요미즈절에 7일간 틀어박혀서 ‘아가씨의 행방을 알려주세요.’라고 기원하자, 장막 안쪽에서 고귀한 여성이 걸어 나와서 “저기 드릴 말씀이…”라고 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무릎을 꿇으니,

D구름 위 높게 비추는 달빛은 다시는 만날 수 없을 텐데 왜 한탄하고 있는지요!

라고 하셔서 걱정이 되어 ‘그럼 이제는…’하고 생각하면서 **C**E잠에서 깨어났다. 가슴이 떨려서 ‘어떻게 보게 된 것일까?’하고 의아해하신다. 급히 일어나서서 독경을 하시고 나오셔서 ‘**F**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구나. 구름 위라는 꿈을 꾸었으니 동궁이 숨겨두고 있는 것인가? 천황이 데리고 계신가?’하며 이제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하고 궁중 안을 마음에 두고 항상 다니신다.

15) 岩城秀之他(1995)『雲ににぐる・住吉物語』中世王朝物語全集11 笠間書院

Aうち払ふ枕の塵を形見とて君なき床に夜をや明かさむ

とうちながめて、…(中略)…B清水に七日籠りて、『この人の行方知らせ給へ』
と思ひて居給へるに、御帳のうちより女房のいみじくやむごとなきさし出でて、
「ややもの申さん」とあるを、何事にかとてつい居たれば、

D雲の上はるかに照らす月影はめぐりても逢はじ何嘆くらん

と仰せらるるに、心細く今とは覚えてCEうちおどろきぬ。胸騒ぎて、『いかに
見つける事ならん』とあやしく覚え給ふ。急ぎ起き居給ひて、誦経などして出で給
ひて、『Fいまだ世にはあるなめり。雲の上と見つけるは、春宮などに隠れ居たるに
や、内裏などの御覧じつけたるにや』と今はこれをたしかに聞かばやと、内裏わ
たり心にかかりて、常に参り歩き給ふ。
(179-180)¹⁶⁾

남주인공이 아가씨를 그리워하는 와카(A)가 『住吉物語』에는 없었지만 『むぐら』에서는 새롭게 보인다. 그리고 절에 가서 기원을 했더니(B) 꿈에(C) 고귀한 여성이 나와서 아가씨와는 이제 만날 수 없다는 와카(D)를 읊고 사라졌기에 잠에서 깬다(E). 이에 남주인공은 아가씨가 죽지 않고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 있다(F)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住吉物語』에는 A의 와카와 아가씨가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F의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むぐら』에서 나온 A, B, C, D, E, F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토기조시인 『ふせやの物語』와 『美人くらべ』, 『秋月物語』에는 나오고 있으므로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ふせやの物語』의 장면이다.

③ a울려 퍼지는 거문고 소리만 옛날 그대로이고 눈물색은 변해 버렸구나.

라고 (쇼쇼는) 한 수 읊었다. …(중략)… 9월 10일경에 b스미요시신사에 백일동안 틀어박혀 기원하려고 작정하고 참배하였다. 하루 아침저녁으로 3330배를 드리고 바라옵건대 후지와라노 도모요리의 부인이 아직 살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거처를 알려주세요. …(중략)… 그런데 7일째 새벽c꿈에 백발노인이 “d당신이 사모하는 사람은 여기서 동쪽으로 찾아가시오”라고 말했다.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중에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는 오로지 신의 계시라고 여겨져서 믿음직스러웠고, ‘f그럼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구나.’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동쪽으로 찾아가려는 생각으로 바로 신사에서 내려오셨다. 집에 도착해서서

16) 常磐井和子(2001) 『むぐら』 中世王朝物語全集15 笠間書院

방에 누워있는 척 하다가 밤중에 오직 혼자서만 나와서 평소에 자주 대화를 나누는 수행자가 살고 있는 **b기요미즈절**에 가서 떠날 곳이 있어서 잠시 수행자 옷을 빌려 입기로 했다.

a弾きならず琴の音ばかり昔にて泪の色もかはりぬるかな

かくながめおはする …(中略)… 九月十日あまりの御事なるに、**b**住吉に百日こもらんと志して、思食立て参り給ひぬ。一日一夜に三千三百三十度の拝み奉りて、願はくは藤原のともよりがふさいまだいきて世にあらば、ありかしらせ給へ。…(中略)…さて七日といふ暁の**c**夢想に、白髪なる翁、**d**わ君が思ひ人は、是より東なるあづまの方をたづねよといふ、いといみじくけ高き御声にて仰せらるゝと思ふに、現とも覺えず。是はひとへに神の教なんめりとたのもしくて、**f**さてはいまだ世にあると、うれしくぞ覺ゆる。さてあづまの方をたづねんと思ひて、やがて下向し給ふ。御所におはして、我御方にふし給ふやうにて、夜のうちに唯ひとり出て、日頃かたらひ置給へる山伏の**b**清水に住む**処**へおはして、たづぬべき事ありて、暫やつれんと思ふなり。 (52-55)¹⁷⁾

아가씨가 행방불명이 된 후에 아가씨를 그리워하는 노래(**a**)를 부르고나서 스미요시 신사(**b**)에 틀어박혀서 기원을 하자 꿈(**c**)에 백발노인이 나와서 동쪽으로 가라고 계시해주는데(**d**) 와카는 아니다. 그래서 쇼쇼는 다행히 아가씨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f**)고 기뻐한다. 『むぐら』와 거의 비슷한 전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ふせやの物語』의 쇼쇼는 또다시 기요미즈절(**b**)에 가서 친한 수행자로부터 옷을 빌려 입고 아가씨를 찾으러 동쪽으로 떠난다. 여기에 기요미즈절이 다시 한 번 나오는 장면이 『むぐら』의 다이쇼가 신불에게 기원했던 장소와 같은 곳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싶다.

이어서 『ふせやの物語』와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알려진 『美人くらべ』도 똑같은 전개양상을 띄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a**울려 퍼지는 거문고 소리를 들으니 함께 소매에 고인 눈물을 닦을 수가 없구려.

…(중략)… 기원을 하려고 생각하셔서 **b**스미요시 신사에 참배해서 7일간 틀어박혀서 나무스미요시신이시여 바라옵건대 부인인 노모세 아가씨의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라며 5번 머리를 지면에 박으면서 기도했더니 7일째 되는 새벽 **c**꿈속에 신의

17) 島津久基 前掲書

계시가 있어서,

d당신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여기서 먼 동쪽 나라를 찾아보시오.

라는 꿈의 계시가 있어서 쇼쇼는 **e**꿈에서 깨어나

동쪽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사랑하는 내 님은 어디에 있는지?

하고 물어보려는 도중에 **e**꿈에서 깨어나, ‘**f**그렇다면 아가씨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 있구나.’하고 기쁜 생각이 들어 좀 더 기도를 하고나서 교토로 돌아가서 조용히 혼자서 집을 나와 **b**기요미즈절 근처에서 수행자를 기다리게 하여 여행용 옷을 입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두건을 쓰고 동쪽으로 떠나셨다.

aひきならず琴の音きけばもろともにたもとの露をはらひこそせね

…(中略)…祈誓をせばやと思召し, **b**住吉に参り七日籠り給ひ、南無住吉大明神、願はくば夫妻の野もせ姫の行方知らせて給へと、五度の頭地に投げて祈り給へば、七日に満ずる暁方の**c**御夢想に、神救有りけるやう、

d君がこふ人はこれより国遠くあづまの方をたづねても見よ

と御夢想ありければ、少将殿**e**夢打ち醒めて

あづまにはいく国々のあるものを恋をするがかいかにしなのか

斯様に御返しをしつと思召しつるうちに, **e**御夢醒めて, **f**刃は此姫未だ世にあるやと嬉しく思召して、愈祈誓し給ひて、都へ帰り、御所を密かに只一人忍び出で, **b**清水の辺にて、山伏に出立たせ給ひ、摺の直垂を召し、御髪を乱し、兜巾被き給ひ、坂東方へ赴き給ふ。(pp.484-485)¹⁸⁾

『美人くらべ』 본문도 역시나 **a-b-c-d-e-f-b**가 똑같은 전개양상을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秋月物語』의 본문에서도 앞서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a-b-c-d-e-f**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⑤ **a**떠난 사람이 지내던 침소를 보니 쓸쓸하게도 불어오는 솔바람

이라고 읊으며 옷소매를 얼굴에 대자 한층 더 슬픔이 밀려온다. 그러는 중 주조는 아가씨의 행방을 찾고자 신불에게 기원하려는 생각으로 **b**기요미즈절에 참배하여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밤새워 기원을 하자 7일째 되는 새벽에 문 안에서 가릉빈가(迦陵頻伽)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d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여기서 서쪽에 있소. 마음을 다해 찾아가시오.

18) 藤井乙男(1926) 『御伽草紙』 有風堂書店

라고 말씀하셔서 **c**꿈속에서 답가를 부르기를

모르는 길을 마음을 다해 찾아가도 그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소?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차에 **e**꿈에서 깨자 고마워서 ‘**f**그렇다면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구나’하고 기뻐서 관음보살 쪽을 보고 엎드려 절하시고 교토로 돌아가는 길에,

(中將)**a**なき人の、すみあらしたる、ねや見れば、ものさひしくも、かよふ松風
とうちゑゐして、なをしの袖を、かほにあて給へは、一しほ哀そまさりける、
さるほとに、中將は、姫君の行衛をも祈はやと、思食て、**b**清水に参り、こもら
せ給ひて、ひめもす、夜もすから、きせひを、申させ給へは、七日にまんする、
その暁、御戸のうちよりも、かれうひんの、御こゑにて、かくそ、あそはしける

d君かいふ、人はこれより、にしにあり、心つくしに、ゆきてたつねよ

と、きこえければ、**e**夢のうちに、御返事申給ふ

しらぬみち、心つくしに、たつねても、いつくをそこと いかてしるへき

と、かやうに申と思食、**e**夢さめ、ありかたくて、**f**さては未、此世におはしける
かと、うれしくて、観音の御かたを伏拝給ひて、御下向ありけるみちにて、

(pp.165-166)

이상으로 여주인공이 행방불명이 된 후, 남주인공이 신불에게 기원을 하러 가서 7일째 되는 날 여주인공의 행방에 대해 계시를 받게 되는 장면을 5개 작품 속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むぐら』의 이 장면은 『住吉物語』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불기원 바로 앞 장면에서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점, 기원하러 간 곳이 『住吉物語』의 하세절과는 달리 『むぐら』에서 나온 기요미즈절이 『秋月物語』에 나오고, 『ふせやの物語』와 『美人くらべ』에서도 스미요시신사에 이어 기요미즈절에 있는 수행자에게로 가서 여행준비를 하는 점, 아직 살아있구나 하면서 기뻐하는 점 등에서 『むぐら』가 『ふせやの物語』, 『美人くらべ』, 『秋月物語』 등의 오토기조시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물론 꿈에 나타나서 은신처를 알려주는 사람이 제각각 다르다거나 서술형식에서 차이가 나는 등의 차이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장면묘사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4. 맺음말

최근에 中世王朝物語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오토기조시 개별작품들과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계모담 화형(話型)을 매개로 한 영향관계에 대해 주목해보았다.

계모담은 중고시대의 『落窪物語』와 중세의 개작본 『住吉物語』를 거쳐, 이후의 오토기조시 『ふせやの物語』, 『美人くらべ』 등 14개 작품으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꾸준한 개작을 통해서 인기를 끌었던 『住吉物語』가 여타 작품에 끼친 지대한 영향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계모담 오토기조시는 『住吉物語』뿐만 아니라, 中世王朝物語 중에서 계모담의 틀을 지니고 있는 『木幡の時雨』와 『むぐら』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中世王朝物語와의 영향관계를 고찰한 계모담 오토기조시는 『ふせやの物語』, 『美人くらべ』, 『秋月物語』, 『岩屋の草子』 등 4개 작품이다.

이를 밝히기 위하여 친딸의 성격적 변용과 장면과 표현의 유사성(남녀 주인공의 재회 혹은 만남, 남주인공의 신불기원)이라는 점에서 中世王朝物語의 중간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고찰해보았다.

먼저 『住吉物語』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계모의 친딸이 『木幡の時雨』에서는 남편에게 여주인공인 둘째딸을 찾아가라고 권하고, 『秋月物語』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남편과 자신의 의붓자매의 만남을 주선해주려고 노력한다.

장면과 표현의 유사성에서는 남녀주인공의 재회 혹은 만남, 남주인공의 신불기원이라는 두 장면을 살펴보았다. 우선 『木幡の時雨』와 『岩屋の草子』는 낙마사고로 인한 요양 후에 주변을 구경하다가 남녀주인공이 만나게 되고 또 그 때 여주인공이 바위 위에 있다가 밝은 불빛 속에서 만나는 장면이 서로 유사하다.

그리고 여주인공이 행방불명이 된 후 남주인공이 신불에게 기원을 하러 가서 7일째 되는 날 그 행방에 대해 계시 받는 장면이 『むぐら』에 나오는데,

이 장면은 『住吉物語』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점, 기원하러 간 절, 여행준비를 하는 점, 여주인공이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점 등 구체적인 장면묘사의 유사성에 있어서 『むぐら』가 『ふせやの物語』, 『美人くらべ』, 『秋月物語』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住吉物語』이외의 계모담 中世王朝物語 중에서 2작품밖에 인용하지 못했으나 나머지 작품과 오토기조시에 대한 영향관계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겠다.

<参考文献>

- 大槻修·田淵福子·森下純昭(1997) 『木幡の時雨・風につれなき』笠間書院 pp.51-55
 島津久基(1928) 『ふせやの物語(考説)』『近古小説新纂』中興館 pp.52-55, 416-444.
 常磐井和子(2001) 『むぐら』笠間書院 p.179-180.
 萩谷治校注(1989) 『室町物語集・上』新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pp.236-238
 藤井乙男(1926) 『御伽草紙』有朋堂文庫 有朋堂書店 pp.484-485.
 松本隆信(1954) 『住吉物語以降—継子苛め譚の類型に関する一考察—』『芸文研究 3』 p.22.
 室城秀之·桑原博史(1995) 『雫ににごる・住吉物語』笠間書院 pp.106-107.
 横山重·松本隆信(1973) 『秋月物語』『室町時代物語大成 第1』角川書店 pp.142-144,
 p.150, pp.165-166

접 수 일: 6월 30일
 심사완료: 7월 25일
 게재결정: 7월 29일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apanese Medieval Monogatari and Otogizoushi

As we know, the Stepchild bullying story is concern with 『Ochikubo-Monogatari』 『Sumiyoshi-Monogatari』 in middle age and 14 works which consist of 『Huseyano-Monogatari』, 『Bijinkurabe』 of Otogizoushi etc after middle age.

However I just consider Stepchild bullying story Otogizoushi that there is high possibility to be influenced of not only 『Sumiyoshi-Monogatari』 but also 『Kowatanosigure』, 『Sayogoromo』, 『Mugura』, 『Shiratsuyu』 and 『Matsukagechunagon』 which 5 works being studied lively in these days. The Stepchild bullying story Otogizoushi in my studying object are 『Huseyano-Monogatari』, 『Bijinkurabe』, 『Akitsuki-Monogatari』 and 『Iwayanosoushi』 which 4 works have a great influence by 『Sumiyoshi-Monogatari』.

In order to clear this point , I considered the role as intermediation theme of Medieval Dynasty Monogatari that included role of real daughter, reunion and meeting of title roles and their worship in temple at 3 those points.

In role of real daughter, the daughter which there was not existence before talked to her husband to find his adopted daughter in 『Kowatanosigure』 and she tried to make meeting between her husband and adopted daughter positively in 『Akitsuki-Monogatari』.

In reunion and meeting of title roles, it was similar between reunion scene in 『Kowatanosigure』 and meeting scene in 『Iwayanosoushi』. And it was also similar title roles meeting during looking around after medical treatment by falling horse then the lady's meeting on the rock with bright firelight at that time.

In worship of title roles in temple, there is scene in 『Mugura』 that the title role of man went to temple for worship to find out missing title role of woman and then he got prediction where she is on 7th day. It can be influenced by 『Sumiyoshi-Monogatari』.

But there is possibility that 『Mugura』 might influence on 『Huseyano-Monogatari』, 『Bijinkurabe』, and 『Akitsuki-Monogatari』 because of scenes those title role of man was singing with missing her, temple for praying, preparing trip and he was happy that the title role of woman was still alive.